盛唐 시가 속의 隱逸 특색 고찰

崔宇錫*

<목 차>

1. 머리말
2. 농후한 政治적 색채의 은일 형상
3. 전격적인 山水田園 은일시의 등장
4. 佛道 사상과 은일시의 결합
5. 결어

1. 머리말

盛唐에 이르러 隱逸의 풍조는 전례 없는 성황을 맞게 된다. 사실 은일을 숭상하는 분위기는 初唐의 사회에서 이미 만연되기 시작하여 적지 않은 시인들이 은일을 흠모하는 시를 창작하거나 직접 은일의 행적을 보였다. 그러나 초당 시단의 경우 "≪新唐書≫, ≪舊唐書≫에서 은일의 행적을 보이며 현재 ≪全唐詩≫에 시를 남긴 이는 겨우 王績(590-644), 武平一(生卒年不詳), 盧照鄰(637?-689?), 田遊巖(生卒年不詳), 盧藏用(?-713?), 徐彦伯(?-714), 韓思復(652-725) 등 7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가운데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일'의 행적을 보이고 또한 이를 시로 승화 시켜 후세에 소위 '은일시인'으로 일컬어지는 이는 王績 한명에 불과하다"[1] 그러나 盛唐에 이르러 이러한 형국은 크게 변하였다. 즉, 평생을 거의 은일하며 대량의 은일시를 창작했던 孟浩然

www.kci.go.kr

* 우송대학교 중국학부 조교수

1) 拙稿, <初唐 시가 속의 隱逸 형상 고찰>(≪中國文化硏究≫, 2010년, 6월, 65쪽.)

(689-740)과 은일의 행적을 남기며 허다한 은일시를 창작한 王維(699?-759) 외에도 李白(701-762), 劉長卿(725?-791?), 祖詠(生卒年不詳), 裵廸(生卒年不詳), 常建(生卒年不詳) 등 일류급 시인들과 수많은 시인들이 은일의 행적을 남기며 많은 은일시를 창작하여, 그야말로 은일시의 성황을 이루었던 것이다.

盛唐에 이르러 은일의 풍조가 극성한 데에는 佛敎와 道敎의 성행 등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아마도 정치적 환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2] 구체적으로 말하면, 朝廷에서의 은일 숭상 분위기와 본격적인 과거제도의 실시에서 그 주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실 조정에서의 은일 숭상 분위기는 일찍이 初唐부터 만연하기 시작했다. ≪舊唐書・隱逸傳序≫에 보이는 "高宗과 則天武后는 도관과 산림을 찾고 바위 동굴로 편지를 날리며, 수차례 은자의 집을 방문하여 기어코 은사의 수레를 돌려 모시고 왔다"[3]라는 대목은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盛唐 시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詔書를 내린 바 있다. 예를 들어, 唐玄宗(712-755)은 開元5年(717年) 2월에 조서를 내려 "훌륭히 깊은 곳에 은둔하며 고상함을 배양하고 벼슬을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州의 장관은 각각 그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4]고 명한 것 외에도, 肅宗(756-762) 때에도 비슷한 조서를 내린 적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은일의 성행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은 자명하다.

주지하다시피 唐代는 개국 초기부터 과거제도를 통해 인재를 등용하였다. 그러나 과거제도가 전국의 일반 백성에게까지 문호가 개방되며 출세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된 것은 初唐 후기인 高宗(668-683)시기 때부터였다. 이에 대해 陳寅恪은 "進士의 과목이 비록 隋代에 설치되었을지라도 그것이 특별히 존중을 받으며 전국 백성이 관직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된 것은 실제로는

2) 사실 隱逸이라는 것은 政治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孔子가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을 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곧 그것을 말아 가슴에 품는다.(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 ≪論語・衛靈公≫"라고 한 바와 같이 정치적 환경은 隱逸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3) ≪舊唐書・隱逸傳序≫: "高宗天后, 訪道山林, 飛書巖穴, 屢造幽人之宅, 堅迴隱士之車。"(北京: 中華書局, 1997年, 5116쪽.)

4) ≪冊府元龜≫ 卷68 <求賢二>: "有嘉遁幽棲養高不仕者, 州牧各以名聞。"

kci.go.kr

당 고종시기, 즉 측천무후가 정치를 독단하던 시기이다"[5]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과거제도가 은일의 성행에 영향을 끼친 것은 두 가지 방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과거제도에 합격하기 위하여 山林으로 들어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은일의 풍조가 더욱 성행하게 된 것이다. 詩賦가 과거시험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初唐 말엽인 中宗(705-709) 神龍元年(705年) 전후였는데,[6] 이 시기 이후부터의 응시자들은 詩賦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공부의 공간을 산림이나 園林으로 옮겨 자신의 性情을 도야하거나 은거 중인 좋은 스승을 찾아 과거 준비를 했던 것이다.[7] 다른 하나는 과거시험에 낙방한 선비들이 대거 산림으로 들어와 은일을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唐代 진행하던 과거시험에서 수천 명의 응시자 가운데 합격한 사람은 적을 때는 몇 사람이고 많아야 30에서 50여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낙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낙방한 응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산림으로 들어가 당시 사회적으로 존중 받던 은자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들로 인하여 盛唐 시기에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은일의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문화 현상에 주목하여, 盛唐 시가 속에서 엿보이는 은일의 형상을 중국의 隱逸史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 고찰하는 한편, 성당 은일시의 내용상의 특색을 隱逸詩史의 측면에서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한다.

5) 陳寅恪, ≪唐代政治史述論稿≫: "進士之科雖設於隋代, 而其特見尊重, 以爲全國人民出士之唯一正途, 實始於唐高宗之代, 卽武曌專政之時。"(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년, 21쪽)

6) 이 주장은 賈晉華, ≪唐代集會總集與詩人群研究≫(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1년, 491-493쪽)에서 인용하였음.

7) 唐代 초기의 進士科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時務策' 5조였다. 高宗이르러 이 시험의 폐단이 드러나 '詩賦'를 포함하는 '雜文'이 추가되었고, '시부'의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단순한 암기 이상의 개인의 性情 도야가 더욱 절실해졌던 것이다.

www.kci.go.kr

2. 농후한 政治적 색채의 은일 형상

盛唐 시가 속에 보이는 은일의 형상 가운데 그 이전과 비교해 가장 두드러지는 특색은 아마도 정치적 색채가 더욱 농후하다는 점일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 색채가 농후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방면에서 논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성당의 많은 문인들이 정치적 목적에서 은일을 구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盛唐의 적지 않은 은일시에서는 이루지 못한 정치적 포부나 功名에 대해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은일자의 형상을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2.1 정치적 목적으로서의 은일 형상

현실정치와는 동떨어져야 할 은일의 형상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盛唐 은일 형상의 커다란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은일이 유행하게 된 것은 아마도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初盛唐 朝廷의 은일에 대한 존숭 및 과거제도의 실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정치 입문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던 과거제도의 과목 가운데 隱逸者를 위한 전문 과목이 설치 된 것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시험이 전국적인 규모로 본격적으로 실시되던 高宗시기부터 이미 은일자만을 위한 시험과목이 채택 되었다. 아래의 표[8]를 보자.

www.kci.go.kr

8) 본 도표는 李紅霞, 張彩紅 <論科擧對唐代隱逸風尙興盛的影響>(≪重慶工商大學學報≫, 2004년 4월, 100쪽.)에서 인용.

시기	과목 명칭
高宗 顯慶4年(659년)	養志丘園嘉遁之風戴逵科
高宗 麟德元年(664년)	銷聲幽藪科
高宗 乾封元年(666년)	幽素科
中宗 神龍2年(706년)	草澤遺才科
中宗 景龍2년(708년)	藏器晦迹科
玄宗 開元2年(714년)	哲人奇士隱淪屠釣科
玄宗 開元15年(727년)	高才草澤沈淪自擧科
玄宗 天寶4年(746년)	高踏不仕科
代宗 大歷2年(768년)	樂道安貧科

바야흐로 제국 번영의 정점을 구가하는 盛唐의 황제들이 이른바 "나라에 도가 없으면 곧 그것을 말아 가슴에 품지만",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을 해야"[9] 하는 뜻있는 선비들을 그냥 산림 속에 가만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盛唐의 많은 문인들은 은일을 정치 입문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으며, 이는 곧 사회의 커다란 풍조로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풍조에 대해, 胡適(1891-1962)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은일의 선비는 사회의 고귀한 계층이 되었다. 총명한 사람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지 않고 오히려 산림 속에 은거하여 은사가 되었다. 은사의 명성이 커지면 자연히 주, 군의 추천과 정부의 발탁이 있었다. 비록 정부의 부름을 받지 못하더라도 은사의 지위는 매우 높은 것이었기에, 여전히 사회의 존숭을 잃지 않았다.[10]

≪資治通鑑≫에 보이는 그 유명한 "終南捷徑"의 고사는 바로 그러한 분위기를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 대목을 아래서 보자.

> 황제께서 天台山의 도사 司馬承禎을 불러 음양술수에 대해 물었더니, 대답하여 아뢰기를, … … 국가는 몸과 같아서 사물에 순응하여 자연스럽게 하고 마음에 사

9) ≪論語・衛靈公≫: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
10) 胡適, ≪白話文學史≫: "在這個空氣裏, 隱逸之士遂成了社會上的高貴階級。聰明的人便不去應科第, 却去隱居山林, 做去隱士。隱士的名氣大了, 自然有州郡的推薦, 朝廷的征辟。卽使不得征召, 而隱士的地位很高, 仍不失社會的崇高。"(合肥: 安徽教育出版社, 1999年, 241쪽.)

www.kci.go.kr

사로움이 없다면 천하는 다스려질 것입니다. 황제께서 감탄하며 말하기를 "신선 廣成子의 말이니 더 이상 좋을 수는 없구나!" 사마승정은 단호하게 천태산으로 돌아가기를 청했다. 황제를 그것을 허락했다. 尙書左丞 盧藏用은 終南山을 가리키며 사마승정에게 말하기를, "이곳에도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 어째서 반드시 천태산만을 고집하는가?" 사마승정이 대답하기를, "어리석은 제가 보기에 이곳은 관직으로 빨리 가는 첩경일 뿐입니다"라고 했다. 노장용은 일찍이 종남산에 은거하다 측천무후 시기에 左拾遺로 불려나갔기에 사마승정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11]

실제로 "初盛唐시기의 隱士들은 점차 唐朝의 동서 兩京의 부근, 즉 長安城부근의 종남산과 洛陽城 부근의 崇山에 집중되었으며, 기타 廬山, 靑城山 등의 은일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12] 이러한 盛唐의 은일 특색은 시가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니, 李頎(生卒年不詳, 735년 進士에 급제함)의 <緩歌行>을 그 예로 든다.

小來託身攀貴遊　어려서부터 귀족에 몸을 맡겨 교유하였으니
傾財破產無所憂　재산을 쏟아 깨져도 걱정이 없었네
暮擬經過石渠署　저녁에는 장서각인 石渠署를 들르고
朝將出入銅龍樓　아침에는 태자궁인 銅龍樓를 출입했네
結交杜陵輕薄子　杜陵의 경박한 부호 자제들과 사귀며
謂言可生復可死　함께 살고 또 함께 죽자고 말했네
一沈一浮會有時　나쁜 때나 좋은 때는 때가 있기 마련인데
棄我翻然如脫屣　나를 버리기를 하루아침에 신발짝 버리듯 했네
男兒立身須自强　남자는 몸을 세우기에 마땅히 스스로 강해져야 하기에
十年閉戶潁水陽　십년간 문 잠그고 영수의 북쪽에 은거했다네
業就功成見明主　공업을 이루어 밝은 군주에게 보이니
擊鐘鼎食坐華堂　종을 치고 정솥의 밥을 먹으며 화려한 당상에 앉노라

11) 司馬光, ≪資治通鑑≫ 卷210: "上召天台山道士司馬承禎, 問以陰陽數術, 對曰： …國猶身也, 順物自然而心無所私, 則天下理矣。上歎曰："廣成之言, 無以過也"。承禎固請還山, 上許之。尙書左丞盧藏用指終南山謂承禎曰："此中大有佳處, 何必天台"。承禎曰："以愚觀之, 此乃仕宦之疾徑耳"。 藏用嘗隱終南, 則天時征爲左拾遺, 故承禎言之。"(北京: 中華書局, 1992年, 6669- 6670쪽.)

12) 張歡, <終南山與盛唐的隱逸風尙>: "在初盛唐時期, 隱士逐漸集中在唐朝的東西兩京附近, 卽長安城附近的終南山和洛陽城附近的崇山。其他像廬山, 靑城山等, 隱逸者就寥若晨星了。"(≪西安文理學院學報≫, 2007年 11月.)

www.kci.go.kr

전체 시 7언 20구 가운데 전반부 12구이다. 李頎는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潁陽(현재의 河南省 登封)에서 오랫동안 은거를 한 적이 있는데, 시속에서 "십년간 문 잠그고 영수의 북쪽에 은거했다네"라고 한 것을 이를 두고 한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십년간 영수가에서 은거한 것은 밝은 군주의 은혜로 이어졌다는 점인데, 여기서 시인은 화려한 功業을 이룬 것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을 엿 볼 수 있다. 시인이 은일을 통해 공명을 추구했음을 한 눈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성당 시기에 은일을 구가하다 정계로 들어간 문인은 허다하다. 예를 들어, "구름에 누워 삼십년을 보내니, 한가로움 좋아하고 또 신선을 사랑하노라"[13]라고 읊었던 李白(701-762)이 壽山, 白兆山, 崇山 등지에서 은거를 한 적이 있었으며, 王惟(699?-759)는 젊은 시절 洛陽일대에서 은거를 한 적이 있고, 房琯(697-763)은 陸渾山에서 은거하며 정계 진출의 기회를 엿 본적이 있었으며, 常建(生卒年不詳, 726년에 과거 급제함)은 鄂州에서 은거하며 때를 기다린 적이 있었다. 이 모두는 한때 은일의 생활을 구가하다 정계에 나간 문인들로,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있어 은일은 그저 하나의 좋은 정계 입문의 수단에 불과 했던 것이다.

2.2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은일 형상

한때 은일의 생활을 영위하다 정계로 들어가 관직 생활을 경험한 이들에게 있어서, 은일은 하나의 정치입문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끝내 정치의 포부를 펼치지 못했거나 혹은 정치 생활이 순조롭지 못해 부득이 산림을 선택해 은일을 했던 문인에게 있어서, 정치는 하나의 끝내 버릴 수 없는 굴레가 되었다. 盛唐의 적지 않은 은일시에서는 이러한 정치나 功名에 대한 미련을 엿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형상은 성당의 대표 은일시인으로 여겨지는 孟浩然(689-740)의 詩作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答秦中苦雨思

www.kci.go.kr

13) 李白, <安陸白兆山桃花岩寄劉侍禦綰>: "雲臥三十年, 好閑複愛仙"(≪全唐詩≫ 卷172)

歸而袁左丞賀侍郎>을 예로 든다.

苦學三十載　각고의 학문하길 삼십년
閉門江漢陰　漢水의 남쪽에서 문 잠그고 은거했다네
用賢遭聖日　현명한 인재 쓰는 성대를 만났으나
羈旅屬秋霖　타향을 떠돌며 가을장마를 맞네
豈直昏墊苦　어찌 물난리의 고통을 만나게 되고
亦爲權勢沈　또한 권세가에 의해서도 눌리게 되었나
二毛催白髮　희끗한 머리털은 백발을 재촉하고
百鎰罄黃金　그 많던 황금은 다 텅비었네
淚憶峴山墮　峴山의 墮淚碑를 추억하며 눈물 떨구고
愁懷襄水深　襄水를 그리며 수심 깊어지네
謝公積憤懣　謝靈運은 울적한 불만 쌓였었고
莊舄空謠吟　莊舄은 하릴없이 노래했었네
躍馬非吾事　말을 달려 공명 이루는 것은 내 일이 아니며
狎鷗宜我心　바다갈매기와 함께 하는 은일이 내 마음에 딱맞네
寄言當路者　집정자들에게 말 전하노니
去矣北山岑　떠나련다, 은자의 북산 높은 곳으로

이것은 맹호연이 약 40세의 나이에 치른 진사시험에 낙방한 뒤 '秦中', 즉 長安에서 머물면서 은일의 뜻을 밝힌 작품이다. 표면상으로는 모든 공명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은일을 구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의 곳곳에는 시인이 이루지 못한 정치와 공명에 대한 애절한 미련이 각인되어 있다. 즉, 공을 이루지 못하고 백발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 등을 사령운의 불만으로 동일시하는가 하면, "끝내 위정자들에게 고향의 북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일견 무례하기 짝이 없으면서도 무한한 분노를 담고 있는 말을 뱉어 놓고야 말았다."[14] 사실, 끝내 떨쳐낼 수 없었던 정치와 공명에 대한 추구로 인해 맹호연은 후세의 평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은자로 평가되기도 했으니, 近人 聞一多(1899-1946)가 "당시의 허다한 은일 경향의 문인들과 같이, 맹호연도 알고 보면 은거를 위한 은거를 한 것이다"[15]라고 말

14) 이남종, ≪孟浩然詩硏究≫(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년, 132쪽.)

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점을 대변한다.

한편 盛唐에 이르러 과거시험에 참가한 응시자는 기하급수로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시험에 급제한 인원은 항상 제한적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뜻을 못 이룬 寒士는 더욱 급증하게 되었다. 明代 胡震亨이 "開元 연간 이후의 문인들 가운데는 영달하지 않은 자가 없고, 天寶 연간 이후의 재능 있는 선비 가운데는 궁핍하지 않은 자가 없다"[16]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뜻을 이루지 못한 문인들 가운데에는 산림을 선택해 은일을 추구한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尉遲斥(生卒年不詳), 沈千運(生卒年不詳, 天寶年間에 수차례 과거시험을 보았으나 모두 떨어짐), 方干(生卒年不詳), 張孫佐輔(生卒年不詳) 등은 모두 과거시험에 낙방한 후에 은일의 생활을 걷게 된 문인들이다. 물론 이들의 은일 생활에는 스스로 이루지 못한 정치 포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니, 예를 들어 沈千運의 <濮中言懷>를 살펴보자.

聖朝優賢良　성대의 세상 어질고 현명한 인재 우대하노니
草澤無遺匿　평범한 뭇 사람들 중 버려지거나 숨긴 이가 없네
人生各有命　인생에는 각각의 명이 있으련만
在余胡不淑　나에게 있어선 어찌 좋지 아니한가
一生但區區　일생이 단지 구구하여
五十無寸祿　오십이 되도록 조금의 벼슬도 없네
衰退當棄捐　점차 쇠퇴하며 버려지고
貧賤招毁譸　빈천하여 훼방만 당하는구나
棲棲去人世　외롭고 쓸쓸히 인간 세상 떠날지니
屯蹇日窮迫　곤궁히 실의에 빠져 날로 궁핍해지네
不如守田園　전원을 지킴만 못할지니
歲晏望豐熟　한해 저물 때 풍성한 수확은 기대할 수 있으리

이것은 시인이 天寶年間(742-755)에 몇 번에 걸쳐 과거시험에 응했으나 모

15) 聞一多, <孟浩然>: "正如當時許多有隱士傾向的讀書人, 孟浩然原來是爲隱居而隱居"(袁千正編選, ≪聞一多古典文學論著選集≫,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1993年, 240쪽.)
16) 胡震亨, ≪唐音癸籤≫ 卷28: "開元以前詞人, 鮮弗達者。天寶以後才士, 鮮弗窮者。"

www.kci.go.kr

두 낙방한 뒤, 자신이 거주하던 濮中(현재의 河南省 濮陽縣)에서 은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詩作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은일의 길을 선택한 시인의 태도에서 불만이 가득한 '懷才不遇'의 심정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나마 陶淵明(365-427)처럼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은일만이 참 삶의 길이기에 선택한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오십이 되도록 이룬 것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어쩔 수 없이 인간 세상을 쓸쓸히 떠난다는 자조의 심정이 시의 곳곳에서 보인다. 확연히 은일을 구가하는 가운데 일찍이 펼치지 못했던 정치에 대한 포부를 지울 수 없는 멍에의 흔적으로 시가 속에 남긴 것은 盛唐에 들어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3. 전격적인 山水田園 은일시의 등장

은일 생활의 동기가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던 아니면 진정 은일을 동경하여 은일을 구가하던, 그것과는 별도로 盛唐에 이르러 그 내용면에서 이른바 '山水田園 은일시'가 크게 유행한 것은 隱逸詩史의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물론 初唐 시기에도 도연명의 은일시를 흉내 내며 적지 않은 전원 기풍의 은일시가 선보였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흉내 내는 수준에 불과 했었다. 실제로 初唐의 대부분의 은일시는 盧照鄰(637?-689?)의 <山林休日田家>, 崔善爲(生卒年不詳)의 <答王無功九日>, 王勃(650-695?)의 <三月曲水宴得烟字>, 宋之問(656?-712)의 <陸渾山莊>의 경우처럼, 잠시 동안 山莊을 찾거나 또는 산림 속에서 연회를 할 때 은일자를 흉내 내며 산수를 노래하거나 혹은 문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贈答詩 속에서 자연을 벗 삼는 은일자의 모습을 구가하는 정도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평생을 은일하며 전격적인 은일시를 창작한 시인은 겨우 王績(590-644) 한사람에 그쳤으며, 비록 그의 은일시 속에 산수전원의 요소가 다분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陶淵明式 창

www.kci.go.kr

작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다.[17] 그러나 盛唐에 이르러 상황은 크게 변하였다. 즉, 은일의 풍조가 전성기를 구가하며 크게 번성하던 盛唐에 이르러 맹호연, 王維(699-761) 등 일류급 시인들이 산수전원 은일시를 대량 창작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시가 특색을 뚜렷하게 각인시킴으로써 중국의 산수전원 은일시는 새로운 경지로 진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시기에 이르러 산수시와 전원시가 하나의 큰 물줄기로 결합되어 이른바 산수전원시파가 형성된 것은 이러한 발전에 큰 배경이 된다. 이에 대해 葛曉音 선생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산수시와 전원시 제재의 먼 원류가 비록 완전히 일치 하지는 않더라도, 晉나라와 宋나라 교체시기에 동시에 흥기한 것으로 같은 철학 사조에서 원류하고 있다. 자연의 도를 철저히 깨닫고 예술형상으로 자연미를 재현하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이 두 가지 제재의 시가는 南北朝에서 初唐까지의 발전을 거쳐 盛唐에 이르러 서로 다른 두 길이 하나로 결합하게 되었다.[18]

물론 성당에 이르러 산수전원시파가 空前의 흥성을 하게 된 것은 당시 성행한 은일의 풍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산수전원시파의 형성 과정에서 왕유, 맹호연 등을 중심으로 初唐의 은일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자신들만의 풍격과 특색을 산수전원 은일시에서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왕유, 맹호연 외에도 儲光羲(706?-762?), 張子容, 劉眘虛, 常建(生卒年不詳, 727年 進士 급제함), 裴迪, 綦毋潛(692?-755?) 등의 많은 은일시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맹호연의 <夜歸鹿門寺>을 살펴보자.

---

17) 拙稿, <初唐 시가 속의 隱逸 형상 고찰>의 '前代 은일자의 再現'(75-79쪽) 참조.

18) 葛曉音, ≪山水田園詩派研究≫: "山水詩與田園詩題材的遠源雖然不盡一致, 但在晉宋之交同時興起, 則源于同一種哲學思潮。對自然之道的徹悟, 以及用藝術形象再現自然美的自覺, 使這兩種題材的詩歌經過南北朝到初唐的發展, 在盛唐殊途同歸。"(遼寧: 遼寧大學出版社, 1993年, 1쪽) 참조. 실제로 盛唐의 은일시 경우에도 '산수'와 '전원'의 제재는 한편의 시 속에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혹은 하나로 융합된 양상을 보여 주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산수은일시 혹은 전원은일시로 양분하지 않고 이를 산수전원 은일시의 범주에서 다루고자 한다.

山寺鐘鳴晝已昏　산사의 종소리에 날은 이미 저물고
漁梁渡頭爭渡喧　어량의 나루터엔 먼저 건너려는 사람들로 시끄럽네
人隨沙路向江村　사람들은 모랫길 따라 강촌으로 향하고
余亦乘舟歸鹿門　나 역시 배를 타고 녹문산으로 돌아가네
鹿門月照開煙樹　녹문엔 달 비춰 안개 낀 나무 드러나니
忽到龐公棲隱處　홀연히 방덕공 은거하던 곳에 이르네
巖扉松徑長寂寥　바위 문 소나무사이 길 오래토록 적막하거늘
惟有幽人自來去　오로지 은자만이 홀로 오고가누나

이것은 시인이 배를 타고 襄陽에 있는 鹿門山으로 돌아가는 심정을 읊은 것이다. 녹문산은 東漢末의 은자 龐德公이 일찍이 은거했던 곳으로 시인의 안식처이기도 하다. 田園 사람들이 강촌의 자기 집으로 향해 가듯이 시인은 閑談한 마음으로 녹문산의 거처로 돌아간다. 시는 전반적으로 외로운 가운데 淸雅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은자의 형상을 잘 드러내, 맹호연만의 독특한 풍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桂天祥의 ≪批點唐詩正聲≫에서 "맹호연의 작품 <鹿門山>에는 그의 본래 면목인 淸徹함과 閑淡함이 모두 이르렀다"[19]라고 언급한 것은 그러한 면모를 확연히 지적해 준다. 이밖에 맹호연의 <彭蠡湖中望廬山>, <秋登萬山寄張五>, <題終南翠微寺空上人房> 등 역시 시인의 개성이 충분히 드러난 은일시로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듯 한 시인의 개성이 은일시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 것은 盛唐 이전에는 손에 꼽을 만큼 적었지만, 盛唐에 이르러 산수전원 은일시의 창작은 기하급수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작품의 내용 역시 자신만의 풍격이나 특색을 확연히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儲光羲의 <吃茗粥作>을 살펴보자.

當晝暑氣盛　대낮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니
鳥雀靜不飛　새들도 고요히 날지를 않네
念君高梧陰　그대 생각하며 높은 오동나무 그늘아래 있지만
復解山中衣　산속이라도 더위에 옷을 다시 벗어야 하네

www.kci.go.kr

19) 桂天祥, ≪批點唐詩正聲≫: "浩然作鹿門歌, 其本象淸徹閑淡備至。"(≪唐詩彙評≫, 杭州: 浙江敎育出版社, 1996年, 527쪽.)

數片遠雲度　멀리 몇 조각 구름만 떠돌며
曾不蔽炎暉　타는 듯한 햇빛을 가리지 않네
淹留膳茶粥　머물며 차죽으로 식사를 하니
共我飯蕨薇　나와 함께 고사리 반찬을 먹네
蔽廬旣不遠　해진 나의 오두막은 멀지 않으니
日暮徐徐歸　해 저물면 천천히 돌아가리라

시인은 開元14년(726)에 그의 나이 약 20세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7년 뒤인 開元 21년(733)에 관직에서 물러나 終南山에서 은거를 했다. 위 시는 아마도 이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은자를 찾아 산속으로 들어갔으나 날은 더워 적막한 풍경이 연출된다. 은자와 함께 차죽을 먹고 고사리 반찬을 먹는 풍경은 매우 핍진한 현실감으로 다가온다. 특히 '고사리(蕨薇)'는 수양산에서 고사리 캐먹으며 은거했던 伯夷와 叔齊의 고사를 연상 시킨다. 또한 마지막의 '오두막(廬)'이라는 시어와 '천천히 돌아가리라(徐徐來)'의 표현 및 음식을 얻어먹고 돌아가는 모습은 이웃에서 술을 얻어먹고 돌아가는 도연명의 형상을 쉽게 연상시키게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 시에 흐르는 정서와 풍격은 도연명과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며, 은일 생활의 작은 느낌을 질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唐詩歸≫에서 鍾惺(1574-1625)이 "단지 말을 하는 것 같으며, 기세가 스스로 질박하고 두터워 도연명 보다 더욱 깊다"[20]라고 평가를 한 것은 그러한 점을 잘 대변해 준다.

이어서 常建의 <宿王昌齡隱居>를 살펴보자.

淸溪深不測　맑은 시냇물 깊이를 알 수 없고
隱居唯孤雲　은거하는 이곳엔 오직 외로운 구름 뿐
松際露微月　소나무 높은 끝엔 희미한 달빛
淸光猶爲君　그 맑은 빛은 그대를 위함인 듯
茅亭宿花影　띠풀 정자에는 은은한 꽃 그림자 머물고
藥院滋苔紋　약초 심은 정원에는 이끼 더욱 자라네
余亦謝時去　나 또한 세상일 버리고 떠나와

www.kci.go.kr

20) ≪唐詩歸≫: "鍾云, 只如說話, 氣自質厚, 深于陶者。"(≪唐詩彙評≫, 410쪽.)

西山鸞鶴伴　서산의 난학과 더불어 살리

이것은 시인의 절친한 친구 王昌齡이 은거했던 石門山의 오두막을 찾아 고아한 은일의 정취를 드러낸 작품이다. 시인과 왕창령은 開元15년(727) 같은 해에 함께 과거에 급제했던 친구이다. 그러나 시인은 얼마 뒤 盱眙縣尉의 말단 관직을 사직하고 西山으로 돌아와 은일을 구가한 반면, 왕창령은 계속 관직에 머물러 있었다. 시에서는 그러한 왕창령에게 과거처럼 은일의 생활로 돌아올 것을 은근히 독려하는 한편 자신의 은일 의지를 돈독히 하고 있다. 시는 전반적으로 자연스런 시어를 구사하며 淸新한 풍격을 풍겨주고 있다. 후세 평자들의 이 시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다. 南宋의 劉辰翁(1232-1297)은 "청아하고 심원하며 깊숙이 고요하다. 만물의 형색과는 다른 종류로, 풍경이 같더라도 뜻은 별개이다"[21]라고 평한 바 있으며, 淸代의 沈德潛(1673-1769)이 ≪唐詩別裁≫에서 "맑고 선명한 필치로, 그 가운데에 신령스런 깨달음이 있다"[22]라고 극찬한 것은 모두 좋은 예이다.

이외에도 綦毋潛의 <春泛若耶溪>, 儲光羲의 <田家雜興八首>, <同王十三維偶然作十首>, 王維의 <早秋山中作>, <田園樂七首>, <終南別業> 등은 시인 자신만의 특색을 확연히 각인시켜 후세에 높은 평가를 받는 산수전원 은일시의 絶唱이다. 이와 같이 은일시는 盛唐에 이르러 산수전원의 제재의 성황과 맞물려 보다 전격적이며 보다 완성도 높은 詩作을 선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沈德潛은 ≪說詩晬語≫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도연명의 가슴에 품은 바는 크고 넓었으니, 그 가운데 깊고 질박하며 중후한 것은 도달할 수 없는 곳이다. 당대 시인 중 우러러 따른 자로, 왕유는 그의 맑고 비옥함이 있었고, 맹호연은 그의 한적한 심원함이 있었으며, 저광희는 그의 박실함이 있었으며, 위응물은 그의 담박하며 화평한 것이 있었으며, 유종원은 그의 강준하며 고결한 것이 있었으니, 모두 배웠으나 그의 성격에 가까운 바를 얻은 것이다.[23]

www.kci.go.kr

21) ≪唐詩選脈會通評林≫: "劉辰翁曰, 淸遠沈冥, 不類色相, 景同意別"(≪唐詩彙評≫, 450쪽.)
22) 沈德潛, ≪唐詩別裁≫: "淸澈之筆, 中有靈悟"(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年, 34쪽.)

사실, 盛唐 시인들이 '고금 은일시인의 시조'[24]로 평가 받는 도연명의 영향을 받았으되, 각자의 풍격과 개성을 자신의 시가 속에서 여실히 구현한 것은 산수전원 은일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은 중국의 隱逸詩史에서 나름대로의 큰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4. 佛道 사상과 은일시의 결합

주지하다시피, 唐朝는 '儒佛道' 三敎가 함께 흥성하던 시기이다. 먼저 불교는 漢代에 전래된 이후 六朝시기의 발전 과정을 거쳐 당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唐代의 황제들 역시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니, 당대의 황제 가운데 武宗(재위 841-846)이 抑佛정책을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 특히 初唐의 中宗(재위 684), 睿宗(재위 684), 측천무후(재위 685-704) 등은 불교에 대해 매우 극진한 정책을 펼쳤다. 실제로 "불교는 唐代에 큰 발전이 있었으니, 天台宗, 三論宗, 法相宗, 華嚴宗, 禪宗 등의 교파는 불교의 중국화 방면에서 이미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도달했다."[25]

한편 道敎는 盛唐에 이르러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唐朝는 개국부터 道家의 창시자인 '李耳'를 唐室의 同宗으로 존숭했으며, 唐高祖(재위 618-626)는 조서를 내려 儒佛道 가운데 도교가 으뜸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玄宗은 도교를 신앙으로 삼은 바 있으며, 開元 연간에는 '老子'를 과거 시험의 내용으로 삼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도교를 신봉하는 문인들이 대거 등장

23) 沈德潛, ≪說詩晬語≫: "陶詩胸次浩然, 其中有一段淵深樸茂不可到處。唐人祖述者：王右丞有其清腴, 孟山人有其閒遠, 儲太祝有其樸實, 韋左司有其冲和, 柳儀曹有其峻潔, 皆學焉而得其性之所近"(丁仲祜編訂, ≪清詩話≫, 臺北: 藝文印書館本, 1976년, 656쪽.)

24) 鍾嶸, ≪詩品≫: "古今隱逸詩人之宗也"(曹旭集注, ≪詩品集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年, 260쪽.)

25) 袁行霈, 羅宗强, ≪中國文學史≫ 第2卷: "佛教在唐代有很大的發展, 天台, 三輪, 法相, 華嚴, 禪宗等教派, 在佛教中國化方面, 都已經到了相當成熟的階段。"(北京: 高等教育出版社, 1999年, 206쪽.)

www.kci.go.kr

하게 됨은 자연스런 일이다. 불교와 도교가 이 시기의 문인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孫昌武 선생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당대 문인 중에는 출가를 하거나 보살계를 받거나 도에 입문하거나 도관의 직무를 맡던 이가 있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승려와 도사를 예를 갖춰 접대하거나 각종 법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로 볼 때, 이 시기 사람들의 종교 신앙은 이미 주로 개인의 인생 추구, 정신 기탁, 도덕 수양 등의 일상 행위로 표현 되었다.26)

특히 불교와 도교의 사상은 은일을 추구했던 성당의 문인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자양분을 제공해 주었으니, 이러한 점은 그들의 은일시에서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

4.1 도교와 은일시의 결합

道敎 사상의 핵심 내용인 '老莊'의 '自然' 사상 등이 은일시에 출현하게 된 것은 '은일시인의 시조'격인 도연명의 많은 작품에서도 이미 살펴 볼 수 있거니와, 또한 初唐의 왕적, 송지문 등에서는 神仙을 추구하며 은일의 정서를 추구한 내용 역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당에 이르러 도교의 사상은 많은 은일시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당의 대부분의 문인들은 도교의 영향 속에서 신선을 추구하는 내용의 은일시를 대량 창작하였으니, 이백, 맹호연, 왕유, 이기, 저광희, 상건, 裴迪(716-?) 등 대부분의 은일시 작가의 詩作에서 그러한 흔적을 뚜렷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맹호연의 <淸明日宴梅道士房>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 본다.

www.kci.go.kr

26) 孫昌武, ≪道教與唐代文學≫: "唐代文人裏也有出家、受菩薩戒、入道、受道籙的, 也有許多人禮接僧、道, 參與各種法事。但總的趨勢看, 這一期人們宗教信仰已主要表現爲個人的人生追求、精神寄託和道德修養等日常行爲。"(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1年, 516쪽)

林臥愁春盡　숲에 누워 봄이 다함을 서러워하노니
開軒覽物華　창문 열어 자연 경물 바라보네
忽逢青鳥使　홀연 심부름 온 파랑새 만나니
邀入赤松家　적송자의 집으로 초청되어 들었네
丹竈初開火　단약 고아내는 아궁이엔 막 불을 지피고
仙桃正發花　신선의 복숭아는 바야흐로 꽃을 피우네
童顔若可駐　동안을 만일 머물게 할 수 있다면
何惜醉流霞　신선의 술에 취한들 어떠하리오

梅道士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시인은 '숲에 누워(林臥)'있는 은일자의 신분으로 梅道士의 山房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느낀 은자의 풍류를 농후한 道敎의 색채로 그려내고 있다. 특히 시의 곳곳에서 보이는 도교의 용어는 매우 이채롭다. 예를 들어, '파랑새(青鳥)'는 전설 속 西王母의 전령을 가리키며, '赤松'은 고대 중국 神農 시절에 비를 다스렸다는 신선을 가리킨다. 또한 丹藥을 고아내는 아궁이인 '丹竈', 신선의 복숭아인 '仙桃', 신선의 술을 가리키는 '流霞' 등의 용어는 모두 도교의 취향을 농후하게 반영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교에서 추구하는 신선의 취향을 은일시 속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는 常建의 <白龍窟泛舟寄天台學道者>, <張天師草堂>, 李頎의 <不調歸東川別業>, 李白의 <寄王屋山孟大融>, <送蔡山人> 등 盛唐의 은일시 작품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은일시 속에서 신선을 추구하거나 '自然'의 사상을 체현하는 경우는 盛唐 이전부터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내용이었기에 그 의의는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그러나 佛理를 포함한 은일시의 경우에는 盛唐에 이르러 그 창작이 유례없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의의가 훨씬 크다 하겠다.

4.2 불교와 은일시의 결합

www.kci.go.kr

승려의 詩作을 제외한 일반 문인들의 은일시 가운데 佛理를 통해 은일의 안

식을 찾는 이른바 '佛理 은일시'는 대체로 남북조시대의 謝靈運(385-433)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27] 그의 <登石室飯僧詩>, <石壁立招提精舍詩> 등은 좋은 대표작이다. 이밖에 남북조시대 후기의 江總(519-594)의 <營涅槃忏還塗作詩> 등 역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남북조 시기의 경우 佛理를 담는 은일시의 창작은 그 창작 양에서 있어서 위에서 열거한 수준에 불과 하여 그다지 주목받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初唐에 이르러서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즉 初唐 시인 王積이 <觀石壁諸龕禮拜成詠>, <獨坐> 등에서 佛理의 내용을 선보이며 은일을 추구했더라도 그것은 불과 몇 수에 불과했으니, 은일시 속에서 佛理 혹은 禪理가 본격적으로 눈에 많이 띄게 된 것은 바로 盛唐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盛唐에 있어서 佛理의 내용을 시작 속에 본격적으로 융화시킨 시인은 단연 '詩佛'로 불리는 王維를 꼽을 수 있다. 왕유는 평생 은일 생활을 영위했던 맹호연과는 달리 여러 차례 관직에 나아가 벼슬생활을 영위했다. 그러나 은일은 그에게 있어서 떠날 수 없는 중요한 정신적 무대였다. 이른바 '관직에 임하며 은일의 생활을 추구한(亦官亦隱)'것은 그의 후반기 인생의 중요한 궤적이기도 하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의 은일시 가운데에는 佛理의 흔적이 매우 농후하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다. 왕유가 활약하던 시기는 불교가 매우 번성하던 시기로 왕유는 이러한 불교를 정신적 지주의 하나로 삼았던 것이다.[28] 이러한 연유로 왕유의 詩作 가운데에는 佛理 혹은 禪理의 색채가 농후했으며, 그의 은일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 예로 <終南別業>을 살펴보자.

中歲頗好道　　중년에 자못 佛道를 좋아하였는데
晩家南山陲　　최근에는 종남산 기슭에서 사노라
興來每獨往　　흥이 일면 매번 홀로 나서니

27) 霍建波, ≪宋前隱逸詩研究≫: "진정으로 불리은일시를 창작한 문인은 첫 번째로 마땅히 사령운을 들어야 한다(眞正的創作了佛理隱逸詩的文人首推謝靈運)"를 참조(北京: 人民出版社, 2006年, 135쪽)

28) 왕유와 불교의 禪宗, 華嚴宗 및 ≪法華經≫의 관계에 대해서는, 張海沙, ≪初盛唐佛教禪學與詩歌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年), 206-217쪽 참조.

勝事空自知　흔쾌한 일들은 그저 혼자만 알 뿐
行到水窮處　한가히 거닐다 물이 다한 곳에 이르면
坐看雲起時　앉아서 구름 이는 때 바라보네
偶然値林叟　우연히 숲 속의 노인 만날 때 면
談笑無還期　웃고 얘기하느라 돌아갈 줄 모르네

이것은 시인이 開元29년(741)에 嶺南에서 長安으로 돌아 온 후 이른바 '亦官亦隱'의 생활을 종남산에서 시작 할 무렵에 지은 은일시이다. 시는 전반적으로 지극히 자연스럽고 맑은 어조로 은일의 생활에서 오는 흔쾌한 즐거움과 깨달음을 술회하고 있다. 이 시에 대한 후세 평자들의 평가는 지극히 높다. 南宋의 魏慶之는 이 시에 대해 "이 시는 뜻을 만들어 내는 절묘함이 사물을 만들어 내는 것과 더불어 서로 표리를 이루니, 어찌 다만 시 속에 그림이 있다고만 할 것인가! 그 시를 보건데 속세에서 벗어나고 만물의 밖에서 떠돌아다님을 알겠다"[29]라고 평가한 것은 대표적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시 속에 보이는 佛理의 이치가 남다르다는 점이다. 첫 구에서 스스로 "중년에 자못 佛道를 좋아하였는데"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第3聯에서는 농후한 禪理를 보여주고 있다. "兪陛雲 선생은 '한가히 거닐다 물이 다한 곳에 이르러 마치 이미 끝나는 곳에 다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다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묘한 경계의 끝이 없음을 본 것이다.'(≪詩境淺說≫)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랄함은 왕유가 佛理에 정통한 점으로부터 이해 할 수 있다. 시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禪宗에서 말하는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의 구절을 어렵지 않게 떠올리게 한다."[30] 이밖에도 왕유의 많은 은일시 가운데에는 불교의 '空' 사상이나 禪悟의 깊은 경지를 체현한 작품이 즐비하니, 그의 <竹里館>, <山中寄諸弟妹>, <過香積寺>, <山居秋暝> 등은 모두 그 좋은 예이다.

이어서 李頎의 <宿瑩公禪房聞梵>를 살펴보자.

---

29) ≪詩人玉屑≫: "此詩造意之妙, 至與造物相表裏, 豈直詩中有畵哉。觀其詩, 知其蟬蛻塵埃之中, 浮遊萬物之表者也。"(≪唐詩彙評≫, 314쪽.)

30) 劉寧, ≪王維孟浩然詩選評≫: "兪陛雲先生說, '行到水窮, 若已到盡頭, 而又看雲起, 見妙境之無窮。'(≪詩境淺說≫) 這種活潑還要從王維深通佛理處來理解。詩意使我們不難聯想到禪宗所說的'應無所住而生其心'"(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年, 86쪽.)

花宮仙梵遠微微　사찰의 범음 소리 멀리 나지막해지고
月隱高城鐘漏稀　높은 성엔 달빛 은은한데 종루 소리 희미해지네
夜動霜林驚落葉　한밤중 서리 숲 흔드니 낙엽에 놀라고
曉聞天籟發淸機　새벽엔 자연의 소리 들으며 맑은 마음 발동하네
蕭條已入寒空靜　적막함은 이미 차가운 공중 속으로 들어 고요한데
颯沓仍隨秋雨飛　바람 속 범음 소리는 여전히 가을 비 따라 날아다니네
始覺浮生無住著　기탁할 곳 없는 뜬 인생임을 비로소 깨달으니
頓令心地欲皈依　홀연 마음속에서 귀의하고자 하네

이것은 시인이 新鄭尉의 벼슬을 마지막으로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와 은거를 하던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시인은 禪房에서 머물며 그곳에서 들려오는 범음 소리를 통해 불교에 귀의하며 은일하고자 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맑은 마음(淸機)', '귀의(皈依)' 등의 불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인상적이다. 明代의 顧華玉(1476-1545)은 이 시에 대해 "詠物의 절창 가운데 이것을 뛰어 넘는 것이 없다. 첫 구는 경물을 묘사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가운데 두 聯은 범음 소리의 맑고 절절하며 빼어나게 기이한 것을 형용하였으며, 마지막에서는 佛理로 귀결하고 있으니, 곧 본색을 볼 수 있다"[31]라며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은일의 풍류를 읊는 가운데 佛理나 禪理의 내용을 발휘하는 것으로는 李頎의 <題神力師院>, 李白의 <山中問答>, 劉長卿(?-790?)의 <尋南溪常道士>, 綦毋潛의 <題鶴林寺>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5. 결어

은일의 문화와 은일시가 함께 번성하며 일대 장관을 이룬 것은 당대 문화의 한 특색으로 삼을 수 있다. 은일의 유행은 일찌감치 初唐부터 만연하기 시작했

www.kci.go.kr

31) ≪唐詩廣選≫: "顧華玉曰, 詠物絶唱無以逾此。起句帶景欲其富麗, 兩聯形容梵聲淸切奇拔, 結歸釋理, 乃見本色。"(≪唐詩彙評≫, 397쪽.)

으며, 盛唐에 이르러서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발전하게 된다. 그것은 唐初부터 시작된 은일 숭상의 분위기, 특히 당대 황제들의 은자에 대한 존숭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과거시험의 인재 선발 방식은 더욱 은일의 풍조를 부추겼다. 즉, 과거시험 가운데 隱者를 위한 과목을 일부러 정한 것으로 인해 많은 문인들이 산림으로 들어가 은일을 추구했으며, 또 한편에서는 과거시험에 낙방한 문인들이 산림을 찾아 마음을 달랬던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盛唐은 제국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했으며 대외적으로도 그 자신감이 드높게 표출되던 이른바 '나라에 도가 서던(邦有道)' 시기로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시기에 은일을 구가한다는 것은 儒家적 입장에서는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당의 문인들이 진정으로 세상과 등지고 은일을 구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尊崇받는 은일을 정치에 입문하는 하나의 '첩경'으로 삼는 경우가 더욱 많았던 것이다. 성당의 대부분의 은자들이 수도 장안에서 가까운 終南山과 洛陽城 부근의 崇山을 은일지로 선택한 것이나, 과거시험을 치르기도 전부터 은일을 추구하다가 조정의 부름을 받고 정계로 나아가는 경우는 모두 그러한 점을 잘 대변한다. 또한 치열한 과거시험에서 낙방한 선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산림을 선택해 은일을 한 경우에는 이루지 못한 정치 功業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懷才不遇 의 심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경우를 감안할 때 盛唐의 은일 형상은 정치적인 요소가 다분히 강하다는 것을 그 특색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은일의 동기 여부를 떠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당의 은일시 속에는 산수전원의 요소가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큰 특색으로 삼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산수전원시가 성당에 이르러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의 산수전원 은일시는 그 내용과 풍격 면에서 '은일시의 시조'격인 도연명의 전원 은일시나 사령운의 산수 은일시와는 또 다른 경지와 내용을 선보임으로써 은일시사의 측면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는 점이다. 즉, 맹호연, 왕유, 상건, 저광희 등의 일류급

www.kci.go.kr

시인들에 의한 최고 수준의 산수전원 은일시의 창작은 모두 그러한 점을 잘 시사해 준다.

또한 성당의 은일시 가운데는 道敎와 佛理의 사상과 취향을 적극 반영한 작품이 즐비하다. 이는 唐初부터 황제들이 도교와 불교를 숭상했던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데, 老莊의 사상과 佛敎의 '空' 혹은 '禪' 사상 등은 실의에 빠져 은일을 추구한 많은 은일자에게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깊은 철학을 제공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불교의 禪理 등이 은일시에서 폭 넓게 선보이게 된 것은 성당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으니, 이는 隱逸詩史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 參考文獻 >

王國瓔, ≪中國山水詩硏究≫, 臺北: 聯京出版社, 1996.
賈晉華, ≪唐代集會總集與詩人群硏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1.
袁行霈, 羅宗强, ≪中國文學史≫, 北京: 高等敎育出版社, 1999.
孫昌武, ≪道敎與唐代文學≫,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1.
霍建波, ≪宋前隱逸詩硏究≫, 北京: 人民出版社, 2006.
張海沙, ≪初盛唐佛敎禪學與詩歌硏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陳伯海主編, ≪唐詩彙評≫, 杭州: 浙江敎育出版社, 1996.
陳貽焮主編, ≪增訂注釋全唐詩≫,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1.
趙殿成箋注, ≪王右丞集箋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胡適, ≪白話文學史≫, 合肥: 安徽敎育出版社, 1999.
佟培基箋注, ≪孟浩然詩集箋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葛曉音, ≪山水田園詩派硏究≫, 遼寧: 遼寧大學出版社, 1993.
이남종, ≪孟浩然詩硏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劉寧, ≪王維孟浩然詩選評≫,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張歡, <終南山與盛唐的隱逸風尙>, ≪西安文理學院學報≫, 2007年 11月.
李紅霞, 張彩紅, <論科擧對唐代隱逸風尙興盛的影響>, ≪重慶工商大學學報≫, 2004年 4月.

www.kci.go.kr

李紅霞, <唐代詩人的社會心態與隱逸的嬗變>, ≪北京大學學報≫, 2004年, 5月.
裴珍珍, <從王維詩歌看盛唐的隱逸文化>, ≪山西高等學校社會科學學報≫, 2006年 7月.
高春燕, <論盛唐, 中唐隱逸詩人的'眞隱'和'心隱'>, ≪牧丹江師範學院學報≫, 2004年 5月.

< 中文提要 >

隱逸文化從初唐開始逐漸發展到盛唐時期更爲繁榮。初盛唐歷代皇帝皆尊崇隱逸, 且科擧制度全面實行, 其中專門設有與隱逸有關的科目。故而, 許多文人爲了參加科擧考試而成爲隱者。另外, 科擧考試失敗的文人由於政治上的失意而走上隱逸的道路。盛唐這種'邦有道'的時代, 很多文人以隱逸作爲入仕的捷徑。盛唐時期, 很多文人都在兩京附近的山中隱逸, 還有一些文人青壯年時期爲了參加科擧而去山林隱逸, 他們名爲隱逸, 實則爲入仕而隱。盛唐時期隱逸詩中山水田園詩篇居多, 雖然這些作品受到陶淵明山水田園隱逸詩的影響, 但很多作品帶有詩人自己的個性, 而且展現出了很高的藝術性, 具有很大的意義。盛唐隱逸詩具有濃厚的佛道色彩, 尤其, 大量出現的佛理色彩的隱逸詩是盛唐以前難以看到的。這也是不可忽略的一大特色。

關鍵詞 : 隱逸詩, 山水田園隱逸詩, 盛唐詩歌, 佛理詩, 道敎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1.9.30	2011.11.7	2011.11.17	2011.11.23	2011.11.30

www.kci.go.kr